

2017년 2월 2일

투자전략 Daily

• 스몰캡 투자전략

전세가 불리할 땐 각개전투용 진지 구축에 집중

• 중화권 증시 동향

춘절 연휴 이후 홍콩 증시 약세 출발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에코프로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청담러닝 외 5개 종목

• 기업분석

농심, 한샘, GS홈쇼핑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자전략 | 박소연 ☎ 3276-6176

시황분석 | 김대준 ☎ 3276-6247

계량분석 | 안혁 ☎ 3276-6272

파생/ETF | 강승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중국시장 | 최설화 ☎ 3276-6274

경제분석 | 박정우 ☎ 3276-6229

채권분석 | 오창섭 ☎ 3276-6174

해외채권 | 박승진 ☎ 3276-6560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 3276-6184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4(화)	1/25(수)	1/26(목)	1/31(화)	2/1(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65.76	2,066.94	2,083.59	2,067.57	2,080.48	
	등락폭	-0.23	1.18	16.65	-16.02	12.91	
	등락종목	상승(상한)	284(0)	252(0)	560(0)	370(0)	597(6)
		하락(하한)	545(0)	576(0)	255(0)	447(0)	200(0)
	ADR	86.94	82.70	86.70	85.40	90.78	
	이격도	10 일	99.72	99.82	100.64	99.91	100.45
		20 일	100.50	100.50	101.16	100.28	100.78
	투자심리	50	50	50	50	60	
	거래량	(백만 주)	312	312	258	288	442
	거래대금	(십억 원)	3,790	6,568	4,426	4,596	4,372
코스닥	코스닥지수	612.93	609.64	616.81	616.13	623.68	
	등락폭	-3.06	-3.29	7.17	-0.68	7.55	
	등락종목	상승(상한)	395(3)	438(2)	861(1)	535(2)	796(1)
		하락(하한)	698(1)	654(0)	251(0)	573(0)	306(0)
	ADR	94.89	94.49	95.71	95.71	96.97	
	이격도	10 일	97.89	97.81	99.21	99.40	100.68
		20 일	97.20	96.74	97.96	97.97	99.24
	투자심리	30	20	30	20	30	
	거래량	(백만 주)	682	774	640	727	918
	거래대금	(십억 원)	2,879	3,015	2,673	2,484	2,446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946.9	1,514.3	854.8	268.4	83.7	157.8	93.9	13.4	237.7	76.8
	매도	2,033.9	1,526.9	799.7	235.1	73.7	199.5	83.1	10.5	197.9	32.3
	순매수	-87.0	-12.7	55.1	33.3	10.0	-41.7	10.9	2.9	39.8	44.6
	2월 누계	-87.0	-12.7	55.1	33.3	10.0	-41.7	10.9	2.9	39.8	44.6
	17년 누계	-71.7	1,626.9	-1,909.4	-311.0	-87.1	-931.5	-412.3	-32.5	-134.9	354.2
코스닥	매수	2,201.0	171.3	90.7	26.6	5.7	25.1	12.5	1.5	19.3	17.9
	매도	2,221.9	151.1	90.4	21.7	8.9	24.9	15.0	1.3	18.8	17.4
	순매수	-20.9	20.2	0.2	4.9	-3.2	0.2	-2.5	0.3	0.6	0.4
	2월 누계	-20.9	20.2	0.2	4.9	-3.2	0.2	-2.5	0.3	0.6	0.4
	17년 누계	828.1	-126.9	-614.4	-295.2	-36.3	-140.0	-45.5	-11.8	-85.6	-86.8

전세가 불리할 땐 각개전투용 진지 구축에 집중

2017년 Target KOSPI	2,260pt
12MF PER	9.77배
12MF PBR	0.96배
Yield Gap	8.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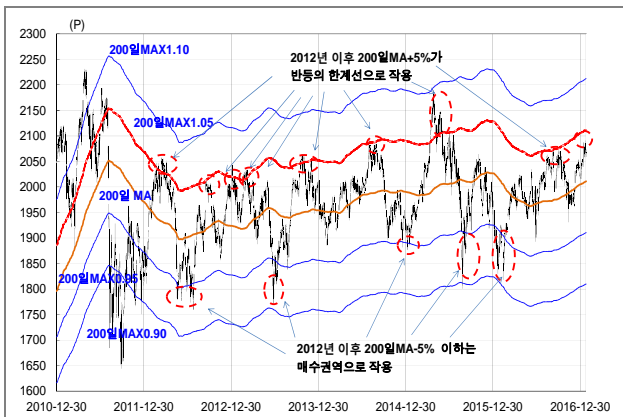
- ▶ 삼성전자 독주, 정국 불안, 수출 호조 등은 대형주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
- ▶ MWC를 앞두고 매년 계절성을 보여온 스마트폰 관련주에서 기회를 찾아 볼 필요
- ▶ 코스닥 폭락 및 수급 불균형이 중첩되며 급락세를 보인 작년 4분기 신규 상장종목을 주목

■ 삼성전자 독주로 대형주 장세 전개

삼성전자의
 역사적 신고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스피 장세는 지속

다우지수는 2만포인트를 넘나드는 역사적 고공권에 돌입해 있는데 반해 코스피는 아직도 기존 박스피의 상단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코스닥지수는 1월 효과는 고사하고 600P선 초반에 맥없이 주저 앉아 있는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IT주들을 견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IT주의 온기가 좀처럼 시장 전반으로 퍼지지 못함에 따라 코스피는 여전히 지난 6년간의 200일 이평선±5%의 박스피 틀에서 갇힌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이 전방위로 확산됨에 따라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도약대로 삼아 성장성이 부각되었던 중소형주들의 경우 '성장 프리미엄' 희석되어 버렸다. 대중국 긴장관계가 완화되기 전까지 중소형주의 추세복원을 논하기는 성급하다. 이로 인해 1월 중 시장은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전개되는 가운데 대형주의 경우에는 성장주, 중소형주들의 경우에는 가치주의 흐름이 전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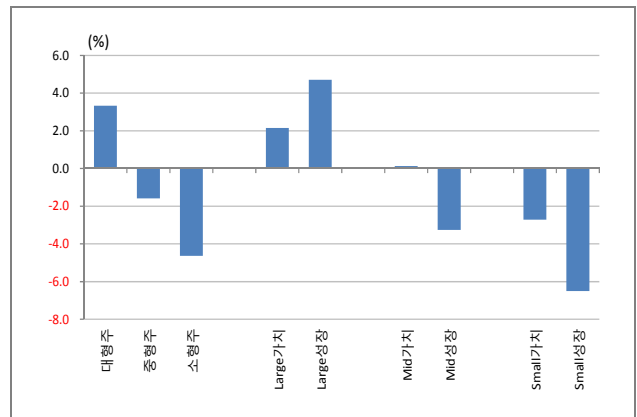
[그림 1] 200일 이평±5%의 박스피 장세 지속



자료: 한국투자증권

1월 효과가 없어도
 1분기 효과에 대한
 기대는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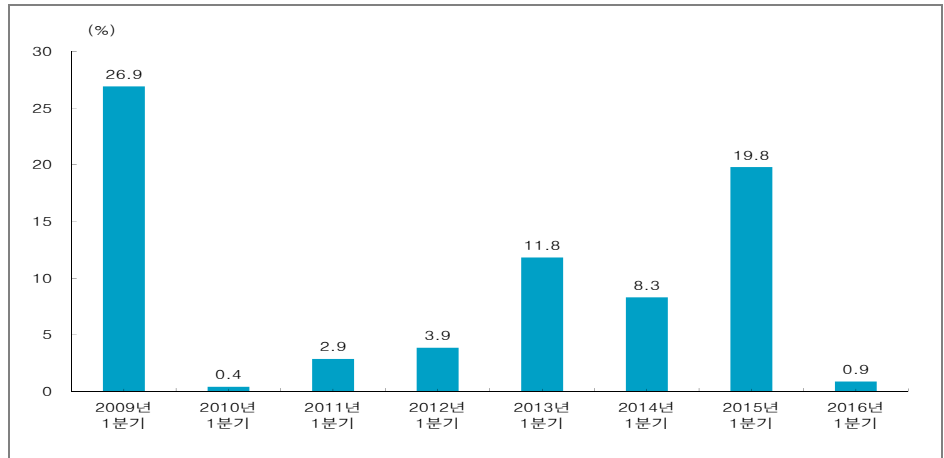
[그림 2] 1월중 WMI500 스타일별 등락률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1월 중 코스피는 2.0%의 상승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은 2.4%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유가증권 소형주지수는 0.2%의 약보합세를 연출했다. 확률 높은 중소형주의 1월 효과가 금년에는 불발됨에 따라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반감되기는 했지만, 중소형주의 1분기 중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상한 상황이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난 2009년 이후 8년간 1분기중에는 예외 없이 상승세를 연출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다. 1~2월 중 하락세를 보인 해에도 1분기말에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던 점에 개별 종목장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꺼진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림 3] 2009년 이후 코스닥의 1분기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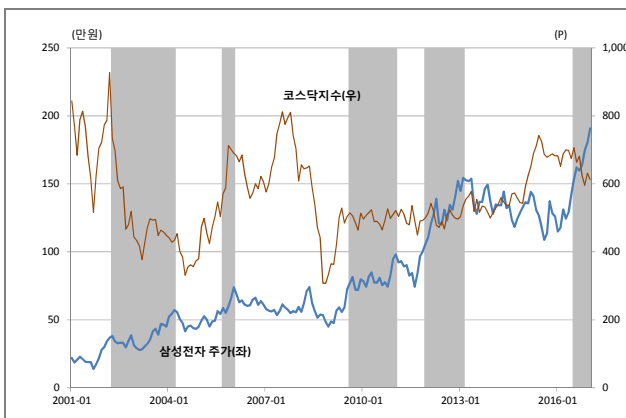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아직 2월 중에도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전개될 공산이 커 보인다.

**삼성전자의 독주는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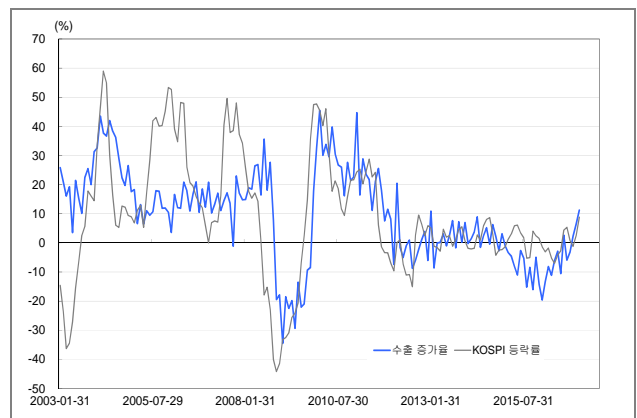
첫째, 삼성전자의 역사적 신고가 기간에는 코스닥지수가 상대적 약세를 보이는 경향성 있다. 코스피가 1천 포인트선을 비가역적으로 돌파했던 2005년 사례를 제외하면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국면에서는 코스닥 지수는 급락세를 보이거나 횡보세를 연출했었다. 더구나 삼성전자의 장기 주가 패턴에 비추어 볼 때 역사적 신고가 돌파 시 상승폭은 통상 직전 역사적 고점 대비 100%에 달했었다는 점에서 아직은 삼성전자 랠리의 종료시점을 예단할 필요는 없는 시점이다. 삼성전자의 역사적 신고가 국면 하에서 중소형주 장세가 전개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림 4] 삼성전자 주가와 코스닥지수 추이



주) 음영부분은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보인 시기를 표시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수출증감률과 코스피 등락률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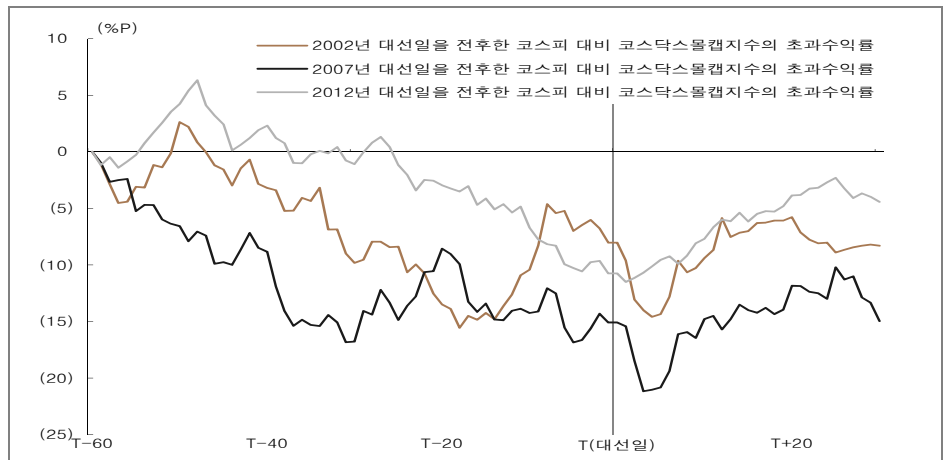
**수출호조,
대형 수출주 위주의
장세 연장**

둘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기간에는 대형 수출주 위주의 장세가 유지되는 경향성이 강하다. 금년 1월 수출이 지난해 말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하며 4년만에 처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재의 수출 증가세가 글로벌 경기 회복 조짐에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출 전망이 어둡지 않아 보인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 수출주 위주의 시장 흐름이 연장될 공산이 커 보인다.

정국불안 하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전략이 유효

셋째, 과거 대선정국 하에서 코스피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반영하는 코스닥 스몰캡지수는 코스피 대비 뚜렷한 약세를 보였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대선 정국에서 정책 혹은 공약과 관련한 테마주들의 강세가 전개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중소형주들은 코스피 대비 상대적 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다. 테마주들의 급등세를 보이기 는 하나,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보다는 국지적 현상에 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국면 이후 예상되는 대선 정국 하에서도 중소형주에 대한 전략은 대선 공약에 편승한 테마주 매매보다는 대형 가치주 위주의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림 6] 과거 대선일을 전후한 코스피 대비 스몰캡지수의 초과수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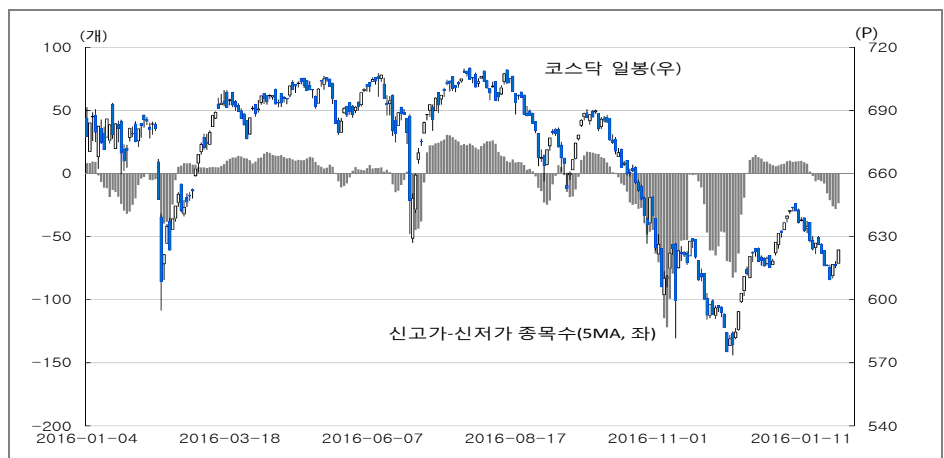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안정적 증가세를
확인할 필요

중소형주 장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시장 여건 상 아직은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적어도 투자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신고가-신저가’ 종목수가 안정적으로 플러스권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개별종목에 대한 접근은 엄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7] 코스닥지수와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현 시점에서의 개별종목과 관련한 접근은 밸류에이션 매력, 실적 개선 모멘텀 등 철저히 바텀-업에 기초하거나 계절성 혹은 낙폭과대 등 뚜렷한 매수 유인이 존재하는 종목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월 중에는 중소형주에 대한 유보적 관점을 견지하는 가운데 4분기 실적 개선 저평가주, 휴대폰 부품주, 낙폭과대 공모주를 중심으로 투자 진지를 구축해 놓고 각개전투를 벌이는 것은 좋은 스몰캡 전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식상하지만, 실적개선 저평가주에 대한 교과서적 대응 유효**

실적 개선 저평가주에 대한 길목지키기 유효

삼성전자 실적발표로 현재 시장은 4분기 실적시즌에 본격 돌입한 상태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실적 시즌에는 분기 실적 개선 저평가주에 대한 길목 지키기 전략이 유효하다. 또한 4분기 실적주의 경우에는 4월까지 시장 대비 아웃퍼폼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4분기 실적발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전술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동기대비, 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세를 보인 종목 중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내재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은 승률 높은 게임이다. 식상해 보이지만 전일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F&F의 경우 신고가를 구가하는 강세에서 알 수 있듯이 4분기 실적 개선 저평가주 투자는 유의미하다.

<표 1> 4분기 실적 개선 저평가주

(단위: %,배)

종목	4분기 실적 YoY 증감률			4분기 실적 QoQ 증감률			PER		PBR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16년(E)	17년(E)	16년9월
F&F	20.3	173.7	177.2	85.6	388.0	403.2	10.0	9.6	1.4
삼기오토모티브	10.3	1.0	16.3	26.2	106.2	51.0	7.0	5.0	0.9
지엔씨에너지	52.4	84.0	70.2	64.7	38.8	48.6	8.9	7.3	1.2
DMS	46.5	81.5	3,693.1	21.5	16.8	650.5	11.2	7.8	2.4
동아엘텍	229.8	2,156.2	938.5	24.1	50.0	115.7	12.1	7.8	2.6
오로라	28.7	176.9	64.4	19.7	125.9	113.2	10.8	9.0	1.3
휴니드	358.6	948.4	620.4	1,468.6	5,171.3	12,284.8	11.8	10.2	2.3
화승인더	27.8	79.9	115.6	23.7	37.5	38.4	13.7	10.7	2.8
한미반도체	15.7	3.5	-8.1	12.0	18.2	54.4	13.7	10.7	2.0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 **미워도 다시한번, 핸드셋 관련주**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모바일월드콩크레스(MWC) 휴대폰 제조사들의 신제품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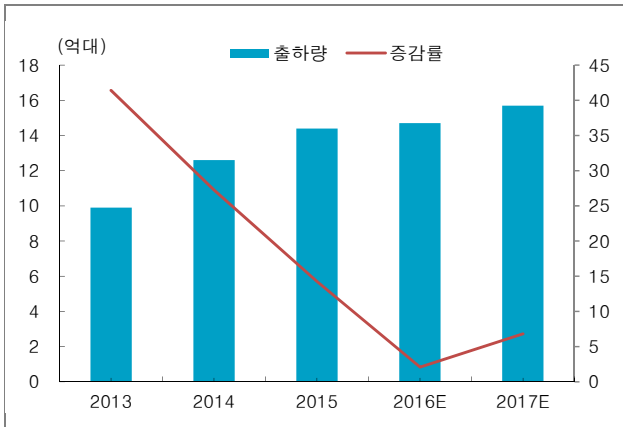
모바일월드콩크레스(MWC)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MWC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이자 세계 3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로 지난 30여년간 모바일에 관한 최고 권위의 행사로 자리 잡아왔다. 글로벌 IT기업들은 이곳에서 첨단 기술을 선보이기 때문에 최신 기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도 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의 기술 발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 LG, 화웨이 등 휴대폰 제조사들은 MWC 시기에 맞춰서 신제품을 선보여 왔기 때문에 올해도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신제품 사양에 따른 수혜주 찾기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글로벌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유효

[그림8]와 같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정체됨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폰 산업은 성숙기에 진입했으며 경쟁이 과열되어 먹을 것이 없는 시장이라는 것이 주류적인 시각이다. 몇몇 기관에서는 올해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업황 불확실성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부담감이 존재하나 MWC를 기점으로 단기적인 접근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MWC 전 20거래일 동안의 등락률을 조사해본 결과, 과거 5년 동안 핸드셋관련주들의 주가는 대부분 코스닥 지수의 등락률을 2배 상회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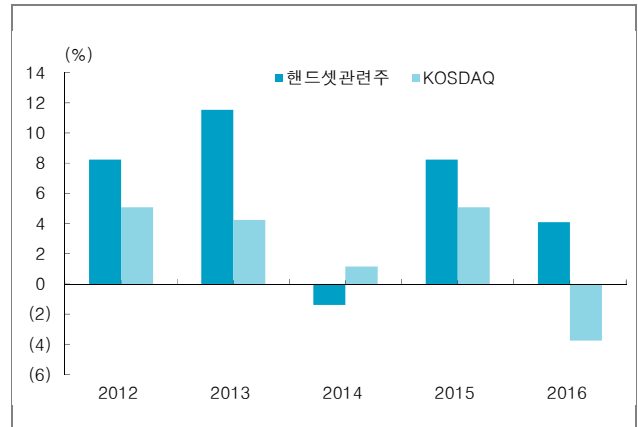
모습을 보였다. 코스닥 지수 대비 하락했던 2014년도에는 갤럭시 S5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제품이 기존 제품과 차별화 포인트가 강하지 않고, 하드웨어적으로도 카메라 외에 진화한 부분이 미미했었기 때문에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따라서 제조사별로 신규로 출시될 대표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면, 2월에는 핸드셋 관련주에서 기회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

[그림 8]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



자료: SA, 한국투자증권

[그림 9] MWC 전 20거래일 핸드셋관련주 등락률



주: 한국투자증권, 아모텍, 비에이치, 삼성전기 등을 포함한 53개 종목으로 핸드셋 관련주를 구성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휴대폰 제조사들은
단가인하보다 품질 향상에
집중하여, 핸드셋 부품주들의
단가인하 압력 완화 예상**

올해는 특히 휴대폰 제조사별로 내놓을 대표 모델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시점이다. 삼성의 갤럭시 S8은 작년 노트7의 발화 사태로 인해 삼성전자의 떨어진 신뢰도 회복을 해야만 하며, LG G5의 실패가 대규모 영업적자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LG전자는 올해 출시될 G6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 역시 아이폰 출시 10주년을 맞아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8 일부 모델에 OLED를 채택하는 등 매우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시기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휴대폰 제조사들은 단가 인하를 통한 비용 감축 보다는 품질관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동안 정체된 성장속에서 단가인하로 고통 받던 부품주들의 실적 회복 및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물량 확대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 2017년 예상 실적 기준 PER 10배 이하의 핸드셋 관련주

(단위: %,배)

종목명	2017년 예상 실적 증감률(%)			17F P/E	비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엠텍	24.2	52.6	69.4	6.6	삼성과 LG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리시버 및 스피커 물량 증가 수혜 전망
나무가	76.4	420.1	1500.0	7.7	VR 시장 개화에 따른 3D 카메라 모듈 제품 판매 확대로 실적 성장 전망
대덕GDS	8.1	9.0	15.5	7.8	주요 거래선 내 카메라모듈 향 R/F PCB 매출 증가 및 중국향 매출도 증가 전망
인탑스	7.6	10.3	9.1	7.9	휴대폰용 케이스에 국한했던 사업 다각화. 가전기기 케이스 매출 확대 전망
와이솔	16.1	22.5	45.5	8.1	삼성전자와 SKT의 IoT 플랫폼에 탑재되는 근거리 통신 모듈 관련 매출 증가 예상
슈퍼겐코리아	13.8	13.2	16.2	8.5	삼성전자 및 애플 관련 매출액 증가 전망. M/S확대 및 유럽 시장 성장 긍정적
코리아써킷	14.7	151.1	흑전	8.8	주기관(HDI) 분야 점유율 증가. 프리미엄급 비중 증가로 수익성 확대 예상
아비코전자	12.4	17.9	19.9	8.9	스마트폰 부품 국산화와 증저가 스마트폰의 고사양화에 따른 수혜 지속
비에이치	90.9	흑전	흑전	9.3	애플 OLED 물량이 본격적으로 가세함에 따라 본격적인 실적 성장 예상
아모텍	14.7	18.5	32.0	9.4	감전소자를 중심으로 한 외형 확대 예상, 자동차 전장 관련 매출 확대 전망
세코닉스	12.0	27.3	25.0	10.1	차량용 카메라모듈 매출 비중 증가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본격화
인터플렉스	71.8	흑전	흑전	10.4	아이폰의 OLED채택으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가능할 전망

주1) P/E는 2017년 예상실적 기준. 현재가는 2017년 1월 31일 기준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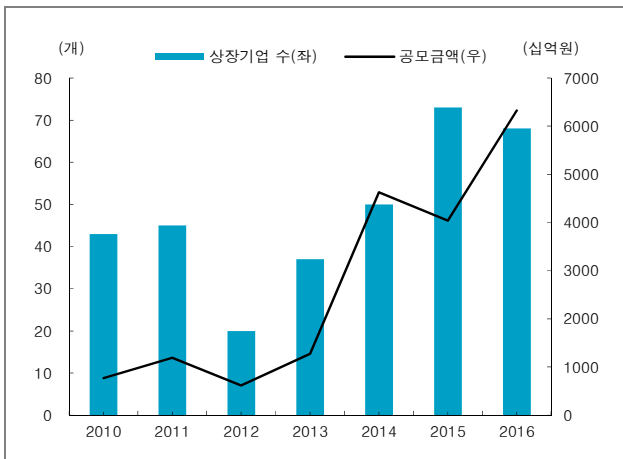
■ 2월은 공모주 투자에 좋은 시기

공모시장은 연간 신규 상장 기업 수가 20개까지 감소했던 2012년 이후, 신속상장제도, 기술특례, 스펙합병 등 상장요건 완화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016년 신규 상장 기업 수(스펙상장 제외)는 68개로 2010년 이후 2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고 총 공모금액은 6.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IPO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장외에서 사는 방법, 다음으로 발행시장에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공모가에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장 직후 유통시장에서 매매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공모가의 불확실성(장외투자 제약요인), 상장초기 주가 급변동성(상장 이후 투자 제약요인) 등을 감안할 때 원론적으로는 공모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 당일 매도하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일 것이다. 실제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 이후 신규상장된 종목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시황과 관계없이 공모가 대비 상장 당일 증가가 상승한 종목의 비중이 60% 이상을 기록했고 상장 당일 증가에 매도할 경우 평균 수익률은 2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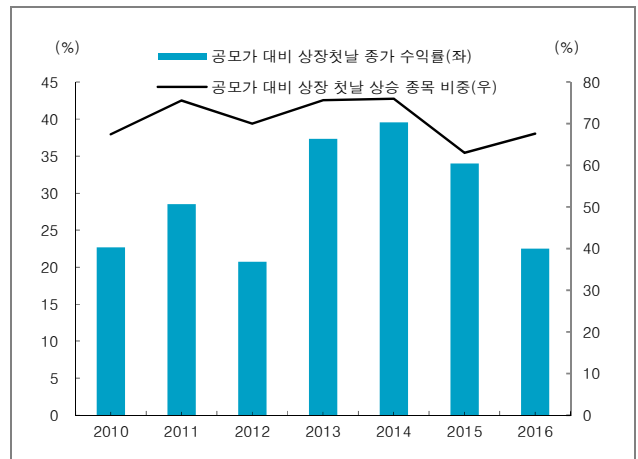
가장 좋은
공모주 투자전략은
청약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 당일 매도하는 것

[그림 10] 상장기업 수 및 공모금액 추이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공모 첫날 증가 매도시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



자료: KRX,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상장 이후
실적 불확실성 및 수급으로
하락이 과도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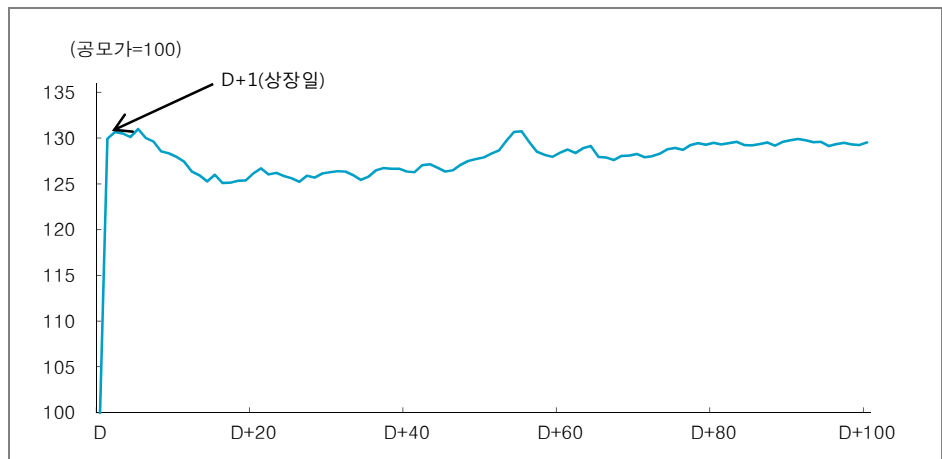
하지만, 청약을 통한 투자는 공모 주식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경쟁률에 기반해 주식을 배정 받기 때문에 안정적임과 동시에 수익률 또한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결국, 공모주 투자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되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고 싶은 투자자라면, 상장 이후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종목 중, 향후 성장성을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선별적 투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장 이후 IPO 기업의 주가는 1~3개월간 기초적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IPO 기업의 경우 대부분 상장 전 회계연도까지 실적이 급성장하는 경우가 많아 공모가에 대한 과대평가 우려나 향후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또한 회사규모가 작을 경우 IPO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이 상장 후 반영되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마지막으로 초기투자자들의 매도물량으로 인한 수급적 영향도 주가 약세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상장 이전부터 투자한 초기투자자들은 매수단가가 낮아 충분한 수익을 거두었을 가능성이 높고 상장을 통한 현금화를 모색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이다. 때문에 초기투자자들로부터 출회하는 매도 물량으로 인해 상장 첫날을 정점으로 주가는 이후

약세흐름을 보이게 되며, 보호예수 기간이 설정된 대규모 물량이 잠재적인 수급 부담으로 작용하여 하락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상 보호예수가
끝나는 1~3개월 사이
주가는 저점 형성 뒤 반등

IPO 기업들의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을 보면 [그림12]와 같이 일반적으로 설정되는 보호예수 기간인 1~3개월 사이에 저점이 형성된 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즉, 상장 이후 실적불확실성 및 수급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하락 구간을 이용해 투자할 경우, 초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림 12] 2010년 이후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 이후 주가흐름



주: 지수는 2010~2016년 상장된 333개의 종목으로 구성
자료: KRX,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코스닥 지수 하락이
시작된 지난해 4분기
신규 상장기업들은
낙폭과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코스닥 지수 하락이 시작된 지난해 4분기 중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경우 지수 하락과 함께 매도매물이 출현하며 과도한 하락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다음은 4분기 신규상장 된 종목들 중 2017년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주가는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스몰캡 종목들을 선별한 것이다.

<표 3>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신규 상장 종목

(단위: %,배)

종목명	2017년 예상 실적 증감률			17F P/E	공모가 대비 하락률	비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엘앤케이바이오	17.7	16.6	17.5	13.1	(41.3)	척추 임플란트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 진입 성공
유니온커뮤니티	15.9	58.4	42.5	6.4	(22.9)	보안용 지문인식 솔루션 업체로 신제품 확대를 통한 매출 확대 기대
클리오	45.8	59.0	51.4	13.1	(18.3)	색채화장품 전문업체로 글로벌 유통채널 확보를 통한 성장성 부각
인텔리안테크	19.6	32.1	33.4	10.8	(11.3)	해상용 위성안테나 업체로 해상 데이터 트래픽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씨아이에스*	31.6	26.3	26.3	7.4	(10.8)	2차전지 전극판 장비업체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성장 기대
인크로스	24.1	15.0	24.5	15.5	(8.1)	대형 광고주의 본격적인 뉴미디어 광고 유입으로 수혜 기대

주1) 예상 P/E, 공모가 대비 하락률은 17년 1월 31일 종가 기준

주2) *표시 종목은 자체 추정 기준 실적 증감률 및 P/E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서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춘절 연휴 이후 홍콩 증시 약세 출발

- ▶ 상해증시는 춘절연휴를 맞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휴장, 2월 3일 개장
- ▶ 홍콩H지수는 0.5% 하락,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해외 자금 유출로 약세 마감

■ 중국 시장

춘절연휴로 2월 2일까지 휴장, 2월 3일 개장

춘절연휴로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휴장, 2월 3일 개장 예정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0.5% 하락, 에너지, 산업소재, 소비재, 금융 등의 업종 약세

춘절 연휴 이후 개장한 홍콩H지수는 0.5% 하락한 9,757p로 마감했다. 약세로 출발한 증시는 오전에 하락폭이 확대됐으나 오후장에 낙폭이 축소됐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환율 정책을 비난한 것과 반이민 정책을 펼침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된 것이 악재로 작용했고, 해외자금이 2주 연속 유출된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산업소재, 소비재, 금융 등이 하락했다.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 분	2/1 (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159.17	휴장	1.87	1.43	1.79
심천종합	1,917.32	휴장	3.22	-3.15	-2.63
차스닥	1,886.23	휴장	2.28	-4.19	-3.86
홍콩H	9,756.61	-0.48	0.31	3.85	3.85
Shibor 7일물 금리(% , %p)	2.69	0.26	3.78	5.74	5.82
Shibor 1개월 금리(% , %p)	3.85	0.56	0.82	17.71	16.49
중국국채 3년물(% , %p)	2.78	0.02	-0.57	-5.78	-3.81
위안/달러 고시환율	6.8588	-0.01	-0.15	-1.25	-1.13
역내 위안/달러	6.8840	-0.01	-0.17	0.94	0.89
역외 위안/달러	6.8342	-0.10	-0.10	2.06	2.08

주: 1일 오후 5시 45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연기금, 금융투자 등 기관 매수에 힘입어 코스피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

-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기업실적과 경제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며 다우지수와 S&P500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나스닥은 소폭 반등하며 혼조세로 마감. 2,070P선을 웃돌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금융투자, 연기금 등 일부 기관 매수세가 상승을 주도하며 하루만에 2,080P선 회복에 성공. 코스닥은 전일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돌아서며 상승을 주도, 1% 이상 급등하며 6거래일 만에 620P선 탈환에 성공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한 한샘, F&F, 현대건설, GS홈쇼핑, SK하이닉스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현금배당을 결정한 삼양식품, 신화인터텍, 진바이오텍 등도 강세를 보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신약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발언하자 보톨리눔독신 제제 '나보타'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웅제약이 7% 이상 급등했으며, 관계사 비보존의 개발 신약 중국 물질특허 등록 소식에 텔콘이 초강세를 보였으며, 카카오투터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한 넷튠이 상한가를 기록. 또한, 정부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에 흥아해운이 급등했으며, 올 상반기 지주사 전환 추진 전망에 일동제약이 강세를 보임. 반면, 지난해 4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칩스앤미디어가 8% 이상 급락했으며, 전일 중국의 수입화장품 규제완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던 LG생활건강 등 일부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외국계 매도세가 유입되며 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GS홈쇼핑(028150) ▶188,000 (+3.98%)	실적 호조 및 배당 확대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4.3% 증가한 451억원을 기록,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호조 소식에 강세 -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 이는 지난해 주당 5,200원에서 크게 확대된 것으로 이와 함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투자 매력도 부각됨
대웅제약(069620) ▶73,200 (+7.33%)	실적 성장 전망 및 나보타 기대감에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미글로, 크레스토 등 신규품목 도입으로 마진율을 회복해 지난 4분기를 기점으로 올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전망에 급등세 - 나보타는 현재 약 60여개 국에 7,0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태이며, 향남공장 증설로 연 3,000억원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됨
텔콘(200230) ▶4,550 (+20.85%)	해외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 진출 기대감에 초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사 비보존이 중국 특허청에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 후보물질(VVZ-149) 및 그 용도에 대한 물질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에 초강세 - VVZ-149 은 지난 2012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인도 등에 국제 특허를 출원한 바 있으며, 유럽·일본 특허 완료 시 기술이전 가시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F&F(007700) ▶20,200 (+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43.2%, 142.1%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 소식에 신고가 경신
삼당당제약(000250) ▶12,850 (+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GMP 인증으로 해외 시장 진출 본격화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에코프로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에코프로 (086520)	11,450 (+2.2)	11,200 (1/16)	- NCA 양극활 물질의 적용분야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설비증설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 - 중국 최대 금속재생기업이자 양극업체인 GEM사와 공동으로 조인트벤처 설립으로 규모의 경제, 인건비 절감, 원재료 조달 경쟁력 강화 등이 예상되며 영업력이 확대될 전망
에스엔텍 (160600)	9,940 (-5.8)	10,550 (1/16)	-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의 차폐 적용 칩과 함께 스퍼터링(Sputtering)을 이용한 차폐 적용 업체들의 증가에 따른 수혜 - 대면적 및 중소형 OLED 패널 공정에 적용되는 물류장비와 합착장비 등 다양한 장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 패널업체들의 OLED 투자 본격화에 따른 수주 모멘텀 기대 유효
휴니드 (005870)	13,500 (-0.7)	13,600 (12/29)	-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TICN(군 종합전술정보 통신체계)프로젝트 향 HCTRS(대용량 무선전송체계) 납품이 16년 9월부터 본격화됐고 4분기 실적에 반영되어 큰 폭의 실적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보잉, 에어버스 등 글로벌 항공방산업체와의 제휴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방산매출 이외에 민간 업체 매출도 확대될 전망
베셀 (177350)	6,980 (+8.0)	6,460 (12/29)	-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업체들의 정부 보조금에 기반한 LCD 생산라인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예정된 투자 스케줄에 따라 In-Line 시스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 - OLED 공정에 In-Line 시스템 시험 생산 장비 납품 경험과 Tianma 향 OLED 장비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유니트론텍 (142210)	8,950 (+0.4)	8,910 (12/29)	- 글로벌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 부문 1위인 Micron사의 국내 반도체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 기대. 다만 AUO사의 디스플레이 모듈 유통 매출이 더욱 확대되어 외형 성장 전망 - 조인트벤처인 '유니트론텍차이나'를 통해 중국 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4분기 실적 개선 예상
휴젤 (145020)	316,900 (-1.3)	321,100 (12/29)	-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균주논란 및 보톡스 수출입데이터 급락으로 고점대비 30%이상 하락하여 낙폭이 과도한 상황 - 계절적 성수기 효과에 따라 4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17년 예상 실적 대비 PER 18배 수준. 제약/바이오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반등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청담러닝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청담러닝 (096240)	17,000 (-6.1)	18,100 (12/29)	163.1	27.8	15.1	2,194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표 영어교육 전문기업으로 오프라인 학원을 직영 및 가맹형태로 운영하며, 콘텐츠 사업과 스마트러닝 기반의 스마트클래스 사업을 운영 - 베트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예정이며 2017년부터 중국 온라인에듀케이션과 계약한 솔루션 로열티 수입이 본격화 될 전망 - 영재수학교육을 영위하는 자회사, CMS에듀케이션의 높은 실적 성장세에 주목
농심 (004370)	326,000 (-2.0)	332,500 (12/29)	2,464	153	142	24,521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품의 가격 인상 효과,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 상승 등으로 실적 개선될 전망 - 경쟁품과의 가격과리가 50% 정도 벌어져 있어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추가 수요 이탈이 미미할 것이며 마케팅 활동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공격적인 프리미엄 라면 출시가 예상되며 중국과 미국의 고성장 지속될 것
에스에프에이 (056190)	71,200 (+10.4)	64,500 (12/29)	1,368	138	96	5,479	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패널업체들의 Flexible OLED 투자 확대 본격화에 따른 수혜 전망 - OLED증착기 경쟁업체인 에스엔유 인수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및 CAPA확장 - 3Q16 수주잔고는 7,422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주요 고객사가 상반기에 발주한 대규모 Flexible OLED장비 매출인식이 본격화 되면서 실적 호전 예상
CJ E&M (130960)	87,500 (+23.4)	70,900 (12/29)	1,643	98	89	2,304	3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퀄리티와 흥행성을 두루 갖춘 콘텐츠 제작·유통 및 광고 단가 상승 등으로 방송 부문의 외형 성장 및 수익성 호전이 지속될 전망 - 자회사 '스튜디오드래곤'과 지분법적용대상 '넷마블게임즈' 상장 추진에 따른 보유 지분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에 주목
이마트 (139480)	203,500 (+11.2)	183,000 (12/29)	14,600	501	296	10,619	1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편식의 수요 증가가 편의점을 넘어 이마트로 확산되는 중. 피코크 등 PL상품 판매 확대로 상품마진이 상승하고 트래픽 증가로 이어질 전망 - 상품차별화로 트레이더스가 이마트의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공격적인 점포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협상력 개선에 따른 마진 상승과 매출증가의 선순환 예상
모두투어 (080160)	32,750 (+13.1)	28,950 (12/29)	239	21	18	1,542	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에 기여하지 못했던 연결자회사들의 실적이 자유투어를 필두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수요 상승과 점유율 확대로 외형 증가, 인건비와 광고선전비 등 효율적인 비용 집행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 모두스테이는 내년 1~3개의 운영호텔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돼 순조로운 사업 확장 및 시너지 효과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마트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농심(004370)

매수(유지)
목표가: 500,000원(하향)
종가(1/31): 318,000 원

4Q16 Preview: 비상(飛翔) 준비

■ 4분기까지는 높은 기저가 부담

4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0.2% 미증한 5,674억원, 영업이익은 15.8% 감소한 243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인 255억원과 당사 기존 추정치인 264억원보다 약간 작다.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이유는 내수 라면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4.2% 줄어든 탓이다. 이번 분기의 프리미엄라면 매출액은 전분기의 320억원보다는 늘겠으나 전년동기의 415억원은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반면 생수와 스낵 매출액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미국의 매출액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16.2%, 16.0% 증가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라면 가격 인상 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데다(12월 20일 인상) 경쟁이 치열해 전년동기 5.1%에서 4.3%로 하락할 전망이다. 실적은 3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목표주가 500,000원으로 하향하나 Top pick 유지

동사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55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하향한다. 이는 목표치인 Global peers의 2017년 평균 PER이 22.9배에서 21.8배로 하락했고, 일부 경쟁사의 가격 인상이 예상보다 몇 개월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2017년 이후 순이익 전망치를 3% 가량 하향했기 때문이다. 목표주가 하향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여전히 섹터 내에서 영업모멘텀과 valuation 메리트가 가장 강해 Top pick으로 추천한다. 2017년에는 국내와 해외가 고른 성장을 보이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53.6% 증가할 전망이다. 높은 이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7년 수정 PER은 13.7배로 Global peers 평균인 21.8배보다 37.2% 낮으므로 적극적인 매수를 권고한다.

■ 2분기부터 국내 실적 개선 본격화될 것

우선 국내 영업은 가격 인상 효과(2016년 12월 20일 5~7% 인상)가 점차 가시화돼, 기저 부담이 없는 2분기부터는 높은 이익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경쟁사들은 동사의 가격 인상 3~4개월후에 제품가격을 따라 올랐다. 이 시차 구간에서 동사는 과거 사례와 같이 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해 마케팅비 지출을 늘릴 개연성이 크다. 2016년 1분기에 프리미엄 짬뽕류의 인기가 매우 컸다는 사실도 당장은 부담이다. 2분기부터 경쟁사의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고 동사의 마케팅비는 줄어들 전망이다. 연결 영업이익은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7.4% 증가(348억원)에 그치겠으나 2분기에는 77.3% 급증(220억원)할 것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2,042	74	65	11,241	(26.5)	155	22.5	6.9	1.0	4.3	1.6
2015A	2,182	118	117	20,291	80.5	198	21.7	11.0	1.6	7.4	0.9
2016F	2,211	92	201	34,675	70.9	178	9.6	7.8	1.1	11.6	1.2
2017F	2,458	141	134	23,229	(33.0)	227	13.7	5.4	1.0	7.2	1.3
2018F	2,634	173	161	27,869	20.0	259	11.4	4.3	0.9	8.1	1.3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월 3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한샘(009240)

매수(유지)

목표가: 240,000원(유지)

종가(1/31): 208,500원

핵심은 노후주택과 리하우스

■ What's new : 부엌유통 매출 성장률, 두자릿수 회복

4분기 별도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37% 증가하며 예상을 상회했다. 연결 영업이익도 별도기준과 유사할 전망이다. 인테리어가구 15%, 부엌유통 16%, B2B는 24% 증가했다. 특히 시공서비스의 부가가치가 포함돼 가장 수익성 높은 부엌유통 매출은 두자릿수 성장률을 회복하며 전사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과거에는 부엌매출만 일으키던 부엌유통 사업부가 2015년부터 욕실/바닥 등 아이템을 확대하며 세대당 매출규모가 커진 영향으로 판단된다.

■ Positives : Rehouse가 성장의 핵심

작년부터 리하우스(모델하우스 컨셉의 부엌/건자재 프리미엄 쇼룸, IK업자들이 활용) 전략으로 전환했다. 대리점 매출(부엌/욕실)은 17%, IK매출(부엌/건자재)은 15% 증가했다. 노후주택의 리모델링은 IK채널에서 매출화되는 경우가 많아 IK의 상승세는 리모델링 시장의 잠재력을 시사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1분기 4개점(대구/대전/부산/인천)을 포함, 올해 10개의 리하우스(서울 2개)를 출점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오픈한 최초의 서울권 리하우스인 양재점은 강남/분당권 노후주택을 겨냥, 출점 1개월만에 월 매출 목표 20억원에 근접했다. 부엌/욕실을 포함, 바닥/창호 등 리모델링 관련 거의 전 영역의 시공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강력한 유통망 구축으로 리모델링 매출은 효과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 Negatives : B2B 고성장은 최소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

전사 수익성 극대화에 B2B 매출 역시 증가한 영향이 크다. 한동안 저조하던 B2B 매출은 지난 3분기부터 큰 폭 성장(38%YoY), 4분기에도 고성장을 이어갔다. 매출이 증가하며 2016년 상반기 3%대에 그치던 B2B 영업이익률은 현재 6%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B2B 매출 성장률은 2017년 상반기가 가장 클 전망이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될 전망이다. 한샘 손익의 key는 B2C인만큼, 큰 변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 결론 : 일종의 불황산업인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리모델링은 일종의 불황형 산업이다. 주택가격 조정기에는 주택 차익거래보다,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성능향상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한국 주택시장은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급속한 노령화에 진입한다. 재건축 추진의 강한 동인인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된다면 재건축보다 개별적인 수선 욕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불황 속에서도 한샘의 장기 성장을 예상하는 이유이며 신축/기존주택 시장이 침체였던 2013년, 차별적 성장을 보였던 이유기도 하다. 한샘은 제조업체가 아닌 건설사의 영역을 아우르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주택 밸류체인 내 한샘을 가장 선호한다. 2017F~2018F EPS에 PER 28배를 적용한 목표주가 240,000원을 유지한다.

	4Q16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522	529	1.3	509	11.4	17.2	2,096	2,060
영업이익	51	55	8.5	40	30.9	37.0	174	160
영업이익률(%)	9.8	10.5	0.7	7.9	1.6	1.5	8.3	7.8
세전이익	NA	59	NA	NA	34.2	39.8	NA	NA
순이익	NA	NA	NA	NA	NA	NA	NA	NA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월 3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GS홈쇼핑(028150)

중립(유지)

종가(1/31): 180,800 원

비용절감으로 양호한 영업이익

■ What' s new : 4Q16 영업이익 450억원(+14.3% YoY)

GS홈쇼핑의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와 우리의 추정을 소폭 상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4.3% 늘어난 450억 원을 기록했다. 양호한 실적의 요인은 비용 요인이었다. 일회성 비용(SO수수료 등 환입) 절감 요인을 제외하면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의 영업이익 규모다. 4분기 취급고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TV쇼핑 취급고는 4,78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했다. 집회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쇼핑은 감소추세가 지속되었으며 모바일쇼핑은 전년동기대비 22.2% 증가했다. TV쇼핑 비중이 낮아지고 모바일쇼핑 비중이 높아지며 매출총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2%p 낮아진 25.8%를 기록했다.

■ Positives : SO수수료 부담 감소, 높은 배당성향

GS홈쇼핑의 2016년 연간 SO수수료는 전년대비 약 4.8% 증가로 추정된다. 위성방송과 T커머스 등이 주요 인상요인이며, 이를 제외하면 약 2.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위성방송 등에 대한 인상요인이 상당부분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SO수수료 부담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GS홈쇼핑은 실적발표와 함께 주당 7,000원 현금배당을 공시했다. 시가배당률 4.0%, 배당성향은 유통업종 내 가장 높은 40.4%이며, 향후에도 30~40% 수준의 배당성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 Negatives : 낮아지는 상품마진

모바일쇼핑 비중이 높아지고, 렌탈 등 무형상품 확대에 따라 상품마진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4분기 실적은 TV쇼핑 부진이 겹치면서 매출총이익률이 1.2%p 낮아졌다. 여전히 수익성은 TV쇼핑이 좌우하고 있으며, 모바일쇼핑의 손익 기여는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 추가적인 비용 절감 등으로 영업손익 개선은 가능하지만, 상품마진 하락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결론 : 투자의견 중립 유지

높은 배당성향과 300억원 규모의 자사주신탁계약 체결 등은 주가에 긍정적이다. 다만, 경쟁심화와 소비부진으로 TV쇼핑의 영업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모바일쇼핑, 렌탈 상품 확대 등으로 추가적인 상품마진하락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valuation 매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GS홈쇼핑에 대한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현재주가는 2017F PER 9.9배, 순현금을 감안한 2017F EV/EBITDA 3.0배에 거래되고 있다.

	4Q16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352	291	(17.2)	330	12.9	(7.7)	1,149	1,197
영업이익	42	45	8.0	41	92.3	14.3	133	129
영업이익률(%)	11.8	15.5	3.6	12.4	6.4	3.0	11.6	10.8
세전이익	32	46	42.9	43	117.7	36.5	145	144
순이익	20	36	77.3	30	144.0	66.1	111	107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월 3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4(화)	1/25(수)	1/26(목)	1/31(화)	2/1(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65.76	2,066.94	2,083.59	2,067.57	2,080.48	
	등락폭	-0.23	1.18	16.65	-16.02	12.91	
	등락종목	상승(상한)	284(0)	252(0)	560(0)	370(0)	597(6)
		하락(하한)	545(0)	576(0)	255(0)	447(0)	200(0)
	ADR	86.94	82.70	86.70	85.40	90.78	
	이격도	10 일	99.72	99.82	100.64	99.91	100.45
		20 일	100.50	100.50	101.16	100.28	100.78
	투자심리	50	50	50	50	60	
	거래량	(백만 주)	312	312	258	288	442
	거래대금	(십억 원)	3,790	6,568	4,426	4,596	4,372
코스닥	코스닥지수	612.93	609.64	616.81	616.13	623.68	
	등락폭	-3.06	-3.29	7.17	-0.68	7.55	
	등락종목	상승(상한)	395(3)	438(2)	861(1)	535(2)	796(1)
		하락(하한)	698(1)	654(0)	251(0)	573(0)	306(0)
	ADR	94.89	94.49	95.71	95.71	96.97	
	이격도	10 일	97.89	97.81	99.21	99.40	100.68
		20 일	97.20	96.74	97.96	97.97	99.24
	투자심리	30	20	30	20	30	
	거래량	(백만주)	682	774	640	727	918
	거래대금	(십억원)	2,879	3,015	2,673	2,484	2,446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946.9	1,514.3	854.8	268.4	83.7	157.8	93.9	13.4	237.7	76.8
	매도	2,033.9	1,526.9	799.7	235.1	73.7	199.5	83.1	10.5	197.9	32.3
	순매수	-87.0	-12.7	55.1	33.3	10.0	-41.7	10.9	2.9	39.8	44.6
	2월 누계	-87.0	-12.7	55.1	33.3	10.0	-41.7	10.9	2.9	39.8	44.6
	17년 누계	-71.7	1,626.9	-1,909.4	-311.0	-87.1	-931.5	-412.3	-32.5	-134.9	354.2
코스닥	매수	2,201.0	171.3	90.7	26.6	5.7	25.1	12.5	1.5	19.3	17.9
	매도	2,221.9	151.1	90.4	21.7	8.9	24.9	15.0	1.3	18.8	17.4
	순매수	-20.9	20.2	0.2	4.9	-3.2	0.2	-2.5	0.3	0.6	0.4
	2월 누계	-20.9	20.2	0.2	4.9	-3.2	0.2	-2.5	0.3	0.6	0.4
	17년 누계	828.1	-126.9	-614.4	-295.2	-36.3	-140.0	-45.5	-11.8	-85.6	-86.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건설업	8,197	전기전자	-23,091
음식료	2,840	미분류	-8,604
의약품	2,486	서비스업	-5,995
현대모비스	6,571	삼성전자	-23,776
한국타이어	4,792	KODEX 200	-5,187
현대건설	4,232	엔씨소프트	-4,820
SK	3,228	현대차	-3,909
LG전자	3,102	현대위아	-3,88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6,290	운수장비	-3,695	서비스업	13,554	운수창고	-3,151
건설업	7,729	유통업	-3,124	한국타이어	8,123	효성	-11,092
LG전자	7,400	기아차	-3,985	LG전자	7,400	S-Oil	-3,380
LG화학	6,043	아모레퍼시픽	-3,365	SK하이닉스	5,438	LG생활건강	-2,449
LG	5,21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283	미분류	-108,377
건설업	1,207	서비스업	-2,384
운수장비	1,064	철강금속	-348
현대중공업	1,489	KODEX 200	-72,952
현대건설	1,100	KBSTAR 200	-32,583
롯데케미칼	779	KODEX 레버리지	-1,513
KBSTAR	612	KINDEX 200	-1,095
200선물인버스2X			
LG전자	569	LG	-1,035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7,282	운수장비	-4,925
미분류	6,277	화학	-2,380
서비스업	3,783	기타금융업	-1,827
KODEX 200	6,162	현대모비스	-3,838
LG전자	5,671	TIGER 200	-3,108
LG디스플레이	2,436	SK하이닉스	-2,436
LG화학	2,387	KB금융	-2,080
ARIRANG 200	2,341	아모레퍼시픽	-1,794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29,088	화학	-10,565
건설업	27,154	유통업	-9,700
서비스업	11,878	운수창고	-7,344
LG전자	29,626	TIGER 200	-20,946
한국타이어	16,539	아모레퍼시픽	-15,812
LG화학	15,935	효성	-14,565
현대건설	12,901	아모레G	-10,305
삼성SDI	10,890	삼성전자	-7,418
KODEX MSCI World	9,903	코오롱인더	-7,351
KODEX 200	9,371	S-Oil	-7,122
GS건설	9,144	현대차	-7,030
NAVER	8,792	LG생활건강	-6,705
SK	8,070	SK하이닉스	-6,379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금속	22,782	전기전자	-35,593	기타금융업	20,355	통신업	-22,589
서비스업	18,256	운수장비	-17,610	LG전자	24,578	삼성전자	-55,967
TIGER 200	20,978	SK텔레콤	-14,225	TIGER 200	20,978	SK하이닉스	-11,067
삼성엔지니어링	12,741	한국타이어	-13,758	현대건설	11,097	한국전력	-11,804
하나금융지주	10,016	SK하이닉스	-11,067	현대제철	9,155	SK	-9,593
아모레퍼시픽	8,867	KT&G	-9,316	아모레퍼시픽	8,867	KT&G	-9,316
POSCO	8,551	LG유플러스	-8,360	POSCO	8,551	LG유플러스	-8,360
한미약품	8,159	기아차	-7,592	한미약품	8,159	기아차	-7,592
아모레G	7,367	한국항공우주	-5,590	아모레G	7,367	한국항공우주	-5,59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3,661	반도체 -3,984
방송서비스	3,572	의료,정밀기기 -1,065
연구,개발	579	비금속 -824
GS홈쇼핑	2,018	원익IPS -2,154
메디톡스	1,485	테스 -1,149
SK머티리얼즈	1,298	AP시스템 -752
CJ오쇼핑	1,169	포스코켄텍 -594
에스티팜	944	지스마트글로벌 -540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1,925	오락,문화 -922
IT부품	1,817	계약 -855
기계,장비	962	화학 -661
주성엔지니어링	2,433	SK머티리얼즈 -2,312
CJ E&M	964	파라다이스 -809
모두투어	722	비아트론 -608
로엔	712	솔브레인 -511
에코프로	567	메디톡스 -45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컴퓨터서비스	214	계약 -293
디지털컨텐츠	174	반도체 -182
의료,정밀기기	143	연구,개발 -94
정원엔시스	214	원익IPS -486
게임빌	180	에스티팜 -254
AP시스템	114	큐리언트 -94
바텍	96	CJ E&M -46
와이솔	95	셀트리온 -45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의료,정밀기기	576	반도체 -1,257
연구,개발	236	방송서비스 -1,000
전문기술	233	디지털컨텐츠 -831
메디톡스	414	CJ오쇼핑 -1,454
GS홈쇼핑	312	컴투스 -873
루트로닉	292	SK머티리얼즈 -768
SKC코오롱PI	265	AP시스템 -728
바이로메드	223	에스에프에이 -331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5,940	반도체 -3,189
방송서비스	4,127	오락,문화 -2,032
IT부품	2,071	의료,정밀기기 -1,886
주성엔지니어링	4,109	원익IPS -3,072
GS홈쇼핑	3,095	비아트론 -1,483
휴젤	2,963	솔브레인 -1,446
메디톡스	2,959	SK머티리얼즈 -1,217
CJ오쇼핑	1,553	에스에프에이 -1,066
씨젠	1,290	셀바이오텍 -1,045
바이로메드	1,195	싸이맥스 -1,029
모두투어	959	파라다이스 -919
인베니아	919	씨아이에스 -903
카카오	868	나무가 -782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6,865	반도체 -13,523
IT부품	2,930	인터넷 -2,388
연구,개발	2,690	방송서비스 -1,449
CJ E&M	2,510	SK머티리얼즈 -5,997
웹젠	2,341	카카오 -3,155
바이로메드	2,092	셀트리온 -2,935
파인디앤씨	1,323	CJ오쇼핑 -2,610
컴투스	1,294	AP시스템 -2,593
지엔코	1,160	휴젤 -1,758
디오	1,064	GS홈쇼핑 -1,350
에스티팜	946	와이솔 -1,206
션코어	900	싸이맥스 -1,111
에스에프에이	875	비에이치 -1,04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휴비스	18 일	동원산업	19 일
조선선재	16 일	한독	16 일
체시스	15 일	강남제비스코	16 일
진양폴리	15 일	메리츠금융지주	12 일
신풍제지	15 일	대원제약	12 일
국보	15 일	한국제지	12 일
필룩스	14 일	동일고무벨트	11 일
한국공항	14 일	고려제강	11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AP위성	32 일	대양전기공업	37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24 일	금화피에스시	24 일
휴젤	17 일	다나와	17 일
모베이스	17 일	원익QnC	13 일
이라이콤	16 일	에프티이앤이	11 일
사파이어테크놀로지	15 일	하림	10 일
옵토팩	15 일	인터로조	10 일
아이택반도체	15 일	탐엔지니어링	10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SK하이닉스	63,382	TIGER 200	75,190
LG전자	49,406	POSCO	66,416
KODEX 200	43,787	LG전자	54,655
LG화학	40,289	삼성엔지니어링	50,531
삼성전기	30,802	현대제철	38,839
SK	27,511	하나금융지주	36,314
한국타이어	24,358	현대차	33,178
KODEX 레버리지	23,053	LG이노텍	29,384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 E&M	14,448	CJ E&M	5,594
휴젤	13,231	지엔코	5,102
주성엔지니어링	12,817	SKC코오롱PI	4,938
파트론	12,215	에스엠	4,092
모두투어	7,097	파인디앤씨	3,918
일진파워	4,796	에스에프에이	3,887
GS홈쇼핑	4,747	웹젠	2,965
동국제약	3,401	주성엔지니어링	2,740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건설업		27,154	6,073 33,227
서비스업		11,878	18,256 30,134
철강금속		4,587	22,782 27,369
LG전자		29,626	24,578 54,204
현대건설		12,901	11,097 23,998
POSCO		4,777	8,551 13,328
삼성엔지니어링		349	12,741 13,090
LG		6,228	5,982 12,210
한미약품		3,436	8,159 11,595
KODEX 200		9,371	603 9,974
현대중공업		5,817	2,718 8,535
KB금융		1,237	5,841 7,077
KODEX 레버리지		2,714	3,994 6,708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5,940	280 6,220
IT부품		2,071	2,930 5,001
연구,개발		36	2,690 2,727
주성엔지니어링		4,109	689 4,798
메디톡스		2,959	622 3,580
바이로메드		1,195	2,092 3,287
에스티팜		461	946 1,407
에코프로		856	537 1,393
위메이드		544	784 1,328
지엔코		69	1,160 1,229
엘앤에프		615	520 1,135
인베니아		919	190 1,109
SKC코오롱PI		233	533 76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함께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기 관	K O S P I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대상	36 일	모토닉	37 일
롯데정밀화학	25 일	대양금속	31 일
효성	23 일	KISCO홀딩스	26 일
벽산	22 일	세화아이엠씨	22 일
부국철강	21 일	LS전선아시아	19 일
보령제약	21 일	한신공영	17 일
영원무역	20 일	세기상사	17 일
서울가스	19 일	알보젠코리아	17 일

기 관	K O S D A Q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리드코프	36 일	대진디엠피	39 일
아이쓰리시스템	30 일	현대공업	33 일
에스앤씨엔진그룹	23 일	한국가구	31 일
셀바이오텍	21 일	에스티오	27 일
휴메덱스	20 일	네오티스	23 일
제넥신	20 일	씨큐브	22 일
남화토건	20 일	동아화성	22 일
엘앤케이바이오	19 일	제이엔케이히터	19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K O S P I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현대차	-78,768	삼성전자	-74,445
TIGER 200	-74,791	현대모비스	-53,690
삼성전자	-59,606	한국항공우주	-37,308
LG디스플레이	-58,643	SK	-36,890
효성	-38,137	KODEX 200	-28,981
기아차	-35,323	LG화학	-28,194
현대제철	-34,085	한국타이어	-26,188
현대위아	-25,112	한국전력	-20,562

기 관	K O S D A Q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서플러스글로벌	-15,338	휴젤	-25,777
유바이오로직스	-11,133	셀트리온	-24,269
셀트리온	-10,512	카카오	-11,961
카카오	-8,485	와이솔	-5,190
원익IPS	-8,185	서플러스글로벌	-3,386
에스엠	-6,194	SK머티리얼즈	-3,208
솔브레인	-5,105	비아트론	-2,457
셀바이오텍	-4,216	동국제약	-2,403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통신업	-3,151	-22,589	-25,741
운송장비	-2,906	-17,610	-20,515
전기가스	791	-11,437	-10,646
삼성전자	-7,418	-55,967	-63,385
SK하이닉스	-6,379	-11,067	-17,446
SK텔레콤	-378	-14,225	-14,604
KT&G	-2,993	-9,316	-12,309
현대차	-7,030	-4,406	-11,436
LG유플러스	-509	-8,360	-8,869
기아차	-59	-7,592	-7,652
한국항공우주	-1,827	-5,590	-7,417
삼성생명	-5,170	-1,897	-7,067
현대위아	-5,122	-1,838	-6,960

종 목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반도체	-3,189	-13,523	-16,712
인터넷	630	-2,388	-1,758
운송장비, 부품	-830	-858	-1,688
SK머티리얼즈	-1,217	-5,997	-7,214
AP시스템	-571	-2,593	-3,164
싸이맥스	-1,029	-1,111	-2,140
비아트론	-1,483	-608	-2,091
테스	-550	-612	-1,162
이오테크닉스	-123	-979	-1,102
파라다이스	-919	-128	-1,047
성광밴드	-662	-383	-1,045
파트론	-393	-420	-813
인텔리안테크	-769	-5	-77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1	60,512
현대모비스	97	24,024
SK하이닉스	245	13,238
NAVER	16	11,847
아모레퍼시픽	35	11,300
기아차	289	10,549
호텔신라	241	10,443
현대차	71	9,95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카카오	34	2,648
셀트리온	26	2,590
바이로메드	13	1,403
디오	41	1,299
서울반도체	63	959
SK머티리얼즈	5	917
파라다이스	64	860
AP시스템	30	833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651	7,203,283
SK하이닉스	32,602	1,750,743
POSCO	3,867	1,047,920
NAVER	1,338	1,013,863
LG생활건강	755	663,457
현대차	4,561	636,264
LG전자	11,125	616,341
OCI	7,122	611,09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4,787	2,483,641
카카오	10,147	788,414
로엔	3,352	260,127
바이로메드	2,245	232,554
코미팜	5,868	180,739
메디투스	434	179,731
파라다이스	10,380	139,088
AP시스템	3,296	92,274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3,966 증권	-12,736	
전기전자	3,648 화학	-5,520	
종이목재	2,313 미분류	-2,612	
대한항공	4,116 미래에셋대우	-9,665	
SK하이닉스	2,971 TIGER 200	-1,580	
한솔제지	1,598 LG유플러스	-1,423	
동아쏘시오홀딩스	1,172 넥센타이어	-1,312	
BNK금융지주	807 TIGER 코스닥150	-1,080	
페이퍼코리아	738 한화케미칼	-1,076	
두산인프라코어	713 IHQ	-1,031	
현대차	684 삼성증권	-877	
삼성엔지니어링	618 금호타이어	-728	
KB금융	559 맥쿼리인프라	-72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제약	2,358 반도체	-1,153	
비금속	1,872 미분류	-1,015	
기계, 장비	1,023 음식료, 담배	-329	
유진기업	1,921 에스앤씨엔진그룹	-924	
셀루메드	1,600 서울반도체	-823	
유지인트	1,017 루멘스	-446	
인선이엔티	877 파트론	-431	
지엔코	595 주성엔지니어링	-352	
옵트론텍	475 대아티아이	-338	
카카오	412 엠벤처투자	-303	
디오	369 이녹스	-297	
서희건설	360 톱텍	-269	
셀트리온	359 파루	-268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4(화)	1/25(수)	1/26(목)	1/31(화)	2/1(수)
외국인	1,626.9	-12.7	244.8	-13.2	208.5	364.0	-301.8	-12.7
기관계	-1,909.4	55.1	-389.3	9.2	-375.7	-196.0	118.2	55.1
(투신)	-931.5	-41.7	-105.5	-8.5	-58.7	-18.0	21.4	-41.7
(연기금)	-112.1	37.0	136.6	-13.1	13.5	61.9	37.2	37.0
(은행)	-32.5	2.9	10.1	2.7	-1.4	3.7	2.1	2.9
(보험)	-87.1	10.0	44.7	1.0	19.5	20.7	-6.4	10.0
개인	-71.7	-87.0	-72.7	-12.5	109.3	-214.8	132.3	-87.0
기타	354.2	44.6	217.2	16.4	58.0	46.8	51.4	44.6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1/23(월)	1/24(화)	1/25(수)	1/26(목)	1/31(화)
KOSPI	1,961.3	2,026.5	2,067.6	2,066.0	2,065.8	2,066.9	2,083.6	2,067.6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1,923.6	21,050.8	20,927.1	21,753.4	21,250.3	21,923.6
(증감액)	6,853.1	58.8	-22,754.4	-86.3	-123.7	826.3	-503.1	673.3
(회전율)	28.8	24.8	32.3	30.4	31.9	44.0	33.4	32.3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17,642.4	86.5	-59.7	840.4	-495.7	847.9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3,071.7	3,092.9	3,093.8	3,076.9	3,057.2	3,071.7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4,057.5	4,134.0	4,122.9	4,096.6	4,071.6	4,057.5
미수금	151.0	125.6	113.8	108.6	105.9	110.7	111.5	113.8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20(금)	1/23(월)	1/24(화)	1/25(수)	1/26(목)
전체주식형	72,475	-1,567	-1,567	-3	-53	-61	8	-5
(ex.ETF)		-1,281	-1,281	-37	-52	-64	-42	-38
국내주식형	54,855	-1,353	-1,353	15	-48	-8	17	0
(ex.ETF)		-1,069	-1,069	-19	-47	-11	-34	-33
해외주식형	17,620	-214	-214	-18	-5	-53	-9	-5
(ex.ETF)		-212	-212	-18	-5	-53	-9	-5
주식혼합형	7,931	-140	-140	-12	5	1	-2	-3
채권혼합형	26,021	-498	-498	-96	-50	-15	-2	8
채권형	104,647	672	672	491	30	260	177	30
MMF	117,725	13,268	13,268	-3,466	-1,164	-1,703	-2,356	7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6(목)	1/27(금)	1/30(월)	1/31(화)	2/1(수)
한국	1,360	-11	39	311	-	-	-262	-11
대만	1,460	0	0	-	-	-	-	-
인도	-73	0	141	-	33	108	-	-
인도네시아	-74	0	38	17	28	23	-30	-
태국	179	0	27	91	-30	0	-35	-
남아공	-998	0	-135	62	-76	53	-174	-
필리핀	6	0	-3	-6	1	5	-3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5년말	1/24(화)	1/25(수)	1/26(목)	1/31(화)	2/1(수)
회사채 (AA-)	2.11	2.09	2.11	2.15	2.14	2.15
회사채 (BBB-)	8.06	8.29	8.30	8.35	8.34	8.35
국고채 (3년)	1.66	1.63	1.65	1.69	1.68	1.69
국고채 (5년)	1.81	1.80	1.82	1.88	1.85	1.87
국고채 (10년)	2.08	2.10	2.13	2.19	2.16	2.17
미 국채 (10년)	2.27	2.47	2.51	2.49	2.45	-
일 국채 (10년)	0.27	0.05	0.07	0.09	0.09	-
원/달러	1,172.50	1,165.90	1,166.00	1,159.20	1,162.10	1,158.10
원/100엔	972.63	1,029.86	1,024.61	1,014.26	1,030.50	1,022.42
엔/달러	120.55	113.21	113.80	114.29	112.77	113.27
달러/유로	1.09	1.08	1.07	1.07	1.08	1.08
DDR3 1Gb (1333MHz)	1.00	1.18	1.18	1.18	1.18	-
DDR3 2Gb (1333MHz)	1.13	1.69	1.69	1.70	1.70	-
NAND Flash 16Gb (MLC)	1.46	1.84	1.84	1.84	1.84	-
CRB 지수	176.81	196.26	195.28	192.56	193.34	-
LME 지수	2,217.9	2,861.3	2,844.3	2,802.0	2,856.4	-
BDI	478	886	862	840	800	-
유가 (WTI, 달러/배럴)	37.04	53.18	52.75	52.63	52.81	-
금 (달러/온스)	1,060.00	1,216.80	1,195.00	1,192.80	1,212.8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3	24	25	26	27
日> 11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0.3%, 0.4%, 0.2%) 유럽> 1월 소비자대지수 (-4.9, -4.8, -5.1)	美> 1월 마켓 미국 제조업 PMI (55.1, 54.5, 54.3) 日> 1월 닛케이 일본 PMI 제조업 (52.8, n/a, 52.4) 유럽> 브렉시트 대법원 판결 1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55.1, 54.8, 54.9)	韓> 4Q GDP QoQ (0.4%, 0.3%, 0.6%) 4Q GDP YoY (2.3%, 2.2%, 2.6%)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4.0%, n/a, 0.8%)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59, 247, 234) 1월 마켓 미국 서비스 PMI (55.1, 54.6, 53.9) 12월 도매 재고 전월비 (1.0%, 0.3%, 1.0%) 12월 신규주택매매(천건) (536, 586k, 592k) 12월 선행지수 (0.5%, 0.5%, 0.0%)	美> 4Q GDP 연간화 QoQ (1.9%, 2.2%, 3.5%) 12월 내구재 주문 (0.4%, 2.7%, -4.5%) 日> 12월 전국 CPI YoY (0.3%, 0.2%, 0.5%) 유럽> 12월 M3 통화공급 YoY (5.0%, 4.9%, 4.8%)
30	31	1	2	3
美> 12월 개인소득 (0.3%, n/a, 0.0%) 12월 개인소비지수 (0.5%, 0.5%, 0.5%) 유럽> 1월 소비자대지수 (-4.9, -4.9, -4.9)	美> 1월 소비자 신뢰지수 (n/a, 112.8, 113.7) 1월 시카고 구매자협회 (n/a, 55.0, 54.6) 日> 12월 실업률 (3.1%, 3.1%, 3.1%) 12월 유효구인비율 (1.43, 1.42, 1.41) 12월 광공업생산 MoM (0.5%, 0.3%, 1.5%) 유럽> 4Q GDP SA QoQ (0.5%, 0.5%, 0.3%) 4Q GDP SA YoY (1.8%, 1.7%, 1.7%) 1월 근원 CPI YoY (0.9%, 0.9%, 0.9%) 실적발표> 美 화이자, 언더아머, 스프린트, 엑손모빌, 마스터카드, AMD	韓> 1월 수출 YoY (11.2%, 9.0%, 6.4%) 美> FOMC 금리 결정 (n/a, 0.75%, 0.75%)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4.0%) 1월 ADP취업자 변동(천명) (n/a, 167, 153) 1월 마켓 미국 제조업 PMI (n/a, 55.1, 55.1) 1월 ISM 제조업지수 (n/a, 55.0, 54.7) 中> 1월 제조업 PMI (51.3, 51.2, 51.4) 日> 1월 닛케이 일본 PMI 제조업 (52.7, n/a, 52.8) 실적발표> 韓 KT, 현대산업 美 애플, 패트라이프	韓> 1월 CPI YoY (n/a, 1.5%, 1.3%)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50, 259) 실적발표> 韓 아모레퍼시픽, LG유플러스, 롯데케미칼, S-Oil 美 페이스북, 코코노필립스,	美> 1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천명) (n/a, 175, 156) 1월 실업률 (n/a, 4.7%, 4.7%) 12월 제조업수주 (n/a, 0.6%, -2.4%) 中> 1월 차이신 PMI 제조업 (n/a, 51.8, 51.9) 실적발표> 韓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아시안항공 美 아마존, 애플, 비자
6	7	8	9	10
실적발표> 美 시스코, 타이슨 푸드	美> 12월 무역수지(십억달러) (n/a, -45.5, -45.2) 中> 12월 차이신 PMI 서비스업 (n/a, n/a, 53.4) 실적발표> 韓 한국전력 美 GM, 뉴조코프, 길러드 사이언스, 월트 디즈니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n/a) 日> 12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n/a, n/a, 1415.5) 실적발표> 韓 우리은행, CJ E&M 美 타임워너, 휴마나	韓> 읍선만기일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n/a) 12월 도매재고 MoM (n/a, n/a, n/a) 日> 12월 핵심기계수주 전월비 (n/a, n/a, -5.1%) 실적발표> 韓 KB금융, 풍산, CJ CGV 美 Yum, 엑스피디아, 비아콤	美> 2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n/a, n/a) 中> 1월 수출 YoY (n/a, n/a, -6.1%) 日> 1월 PPI YoY (n/a, n/a, -1.2%) 12월 3차 산업 지수 MoM (n/a, n/a, 0.2%)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